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21 / 2009.5.29

□ 일본, 고효율 가전제품 에코포인트제 실시

- 일본 정부는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10년 3월말 시한으로 에코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음.
- 에너지효율 최고등급인 5등급과 4등급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정부로부터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에 대한 비용을 에코포인트 적립으로 보조받게 되며, 이 때 적립한 포인트를 다른 상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음.
- 보조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전구형 형광등 등으로 에너지효율 4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전제품임. 에어컨과 냉장고는 가격의 5%, 지상디지털 방송 TV는 10% 정도가 에코 포인트로 적립됨.
-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 해당 제품의 구입자는 구입 일시 및 장소, 상품과 구입자명이 기재된 영수증을 직접 에코포인트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동 사업은 '09년 3,000억 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를 운영하는 사무국이 공모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향후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日本經濟新聞, 2009.5.20)

NEWS

- 일본, 고효율 가전제품 에코포인트제 실시
- 중국,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구입 보조금제도 도입 추진
- 일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
- 미국, 연비향상정책에 따른 차량가격 상승 우려
- 필리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방안 마련
- 미중비사미국 사단사, 석탄화력 CCS 플랜트 건설
- 세계은행, 중국 석탄화력 프로젝트 지원 예정
- 유럽투자은행, 베트남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 함의
- 국제배출권거래협회, 미국 CO₂ 배출권 톤당 최저 \$10로 예상
- GCC, '05~'08년간 재정흑자 \$5,640억 기록
- UAE, '15~'17년까지 원자력발전 개시 목표설정
- 이라크, 외국석유회사에 35%로 법인세 인상 추진
- 카타르, 세계 LNG 수요의 30% 공급 목표
- 사우디, 3년 내 유가 \$150로 급등 경고
- 리비아, '13년까지 원유 230만b/d 생산 계획
- 프랑스, 에너지절약증서제도 절약목표 달성
- 스위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사업 투자 확대
- EU 집행위, 호주와 CCS 기술 협력 강화
- 이탈리아-미국, CCS 기술 협력협정 체결
- Alstom, 네덜란드 화력발전소에 고효율 터빈 공급계약 체결
- 덴마크, '08년 풍력발전설비 수출 20% 증가
- G8 에너지장관, 유가인정 촉구
- IEA, '09년 석유·가스 상류부문 투자 21% 감소 전망
- 세계 LNG 장기 계약시장, 구매시장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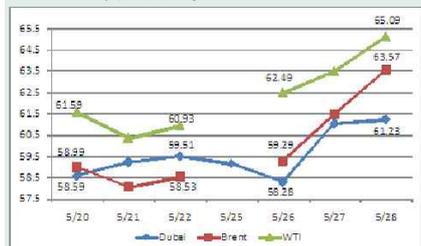
ANALYSIS

- 에너지효율 향상효과에 대한 반등효과 고려 배제
- 석유 메이저, 아시아 지역의 심해유전 탐사 개발 동향

REPORT

- 국제유가 상승요인과 향후 지속 가능성

Oil Prices (Spot, \$/bbl)





ASIA, AMERICA & MIDDLE EAST

□ 중국,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구입 보조금제도 도입 추진

- 중국 정부는 5월 21일 내수 확대 및 에너지절약 추진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 전력량이 적은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마련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음.
 - 보조대상은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며,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과 일반 가전제품의 가격차에 비례해서 차등 보조할 예정임. 환경성능이 높을수록 보조금액이 많으며, 에어컨인 경우는 대략 최대 850 위안을 지급할 방침임.
 -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동 정부는 보조금 지급제도 도입으로 연간 최대 5,000억 위안 규모의 수요를 창출하고, 또한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의 시장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연간 7,500만 톤의 CO₂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임.

(每日新聞, 2009.5.21)

□ 일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

- 일본 정부는 5월 24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6월 결정에 앞서 아소 총리 주최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동 간담회에서 5월 7~17일까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년까지 '90년 대비 7% 온실가스 감축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45.4%로 가장 많았음.
 - 일본 경단련이 지지하는 '20년까지 '90년 대비 4% 증가안은 15.3%, 환경단체가 지지하는 25% 감축안은 4.9%로 응답함. 현재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6개 검토안을 놓고 대폭 감축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낮은 감축목표를 요구하는 경제단체가 대립하고 있음.
 - 또한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시 중요시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서는 실현가능성이 36.3%를 차지하였으며, 지구온난화 대책 방지에 대한 공헌은 25.9%였음.

- 향후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20년까지 '90년 대비 7% 감축안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폭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임.

(時事通信, 2009.5.24), (毎日新聞, 2009.5.25)

□ 미국, 연비향상정책에 따른 차량가격 상승 우려

- 미국 오바마 정부의 연비향상정책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가 미국 승용차 및 트럭의 전체 연비를 7년 내 40%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오바마 정부는 '09년 5월 19일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16년까지 현재보다 약 1/3 감축하기 위해 '16년까지 모든 미국 자동차의 평균 연비기준을 갤런 당 현재 25마일(10.6km/ℓ)에서 35.5마일(15.1km/ℓ)까지 향상하는 방안을 발표함.
- 오바마 정부의 연비정책은 유가가 '16년까지 급등하여 더 비싸지만 보다 작고 연비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자동차 제조업계의 대폭적인 연비개선의 경험을 활용할 것이라는 2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70년대와 '80년대에 강력한 연비기준의 달성 노력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하여 '75년 대비 평균 연비가 약 60% 높아진 '08년형 차량을 제작한 바 있음.
- 연비정책에 대한 컨설팅기업인 Ricardo Inc.는 중대형 트럭의 연비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선택하는 기술에 따라 1대당 \$5,000~\$12,000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1대당 \$1,300의 비용 상승을 추산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자동차 가격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연비 자동차의 구매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The Wall Street Journal, 2009.5.26)



□ 필리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방안 마련

- 필리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메커니즘을 구축할 목적으로 '08년 신재생에너지법(The Renewable Energy Act)에 의거한 시행방안을 마련함. 동 시행방안은 바이오매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조력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추진에 중점 목표를 두고 있음.
 -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필리핀 에너지부는 중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4,000MW가 될 것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고 '10년까지 에너지자급도 6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동 방안의 시행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부문의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투자자에 대한 7년간 소득세가 감면되고, 이후 법인세가 현행 35%에서 10%로 낮아질 것임.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계, 장비, 부품 및 원자재 수입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와 국내산 장비에 대한 100% 세액 공제, 가속 상각과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생한 탄소크레딧의 세금 면제 등이 인센티브에 포함.
 -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의 원가에 1.5%의 한도내 부동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예정.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은 12%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개발자들의 경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비용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음.

(Energy Business Review, 2009.5.26)

□ 미쯔비시-미국 서던사, 석탄화력 CCS 플랜트 건설

- 미쯔비시중공업은 5월 22일 미국 전력기업인 서던사(Southern Company)와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1일 500톤의 CO₂ 를 회수할 수 있는 대형 탄소포집·저장(CCS)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11년부터 3~4년간 실증운전을 실시하여, 미쯔비시가 석



탄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중에 포함되는 불순물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간사이전력과 공동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검증하며, 서던사는 자회사인 알라바마(Alabama)전력이 소유한 출력 2,525MW급 배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탄소포집·저장(CCS)의 실증실험을 실시할 계획임.

- 동 프로젝트에 소요될 비용은 3~4년간 총 \$1억~\$1.5억으로 추산되며, 미국 전력연구소(EPRI)도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임.

(三菱重工, 2009.5.22)

□ 세계은행, 중국 석탄층가스 프로젝트 지원 예정

- 세계은행은 중국의 에너지수요 충족과 기존 석탄의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목적으로 석탄층가스(coal bed methane, CBM) 개발 및 이용 프로젝트에 \$8,000만의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고 발표.
- 동 프로젝트는 중국 연간 석탄생산량 26억 톤의 1/4과 CBM 32조m³ 중 1/3을 생산하는 산시성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연간 2.5억m³의 메탄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가스정 개발 및 연간 생산량 20만 톤에 달하는 5만톤급 LNG 플랜트 4기의 건설계획이 포함됨. 생산된 LNG는 산시성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 가정용, 산업용 및 상업용으로 공급될 예정.
- '07년 총 에너지소비 중 석탄수요는 약 69%를 차지함. 석탄의 생산 및 소비증가로 중국에서 심각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 이에 청정에너지 개발의 활성화 차원에서 채굴작업의 안전성을 개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석탄층가스의 개발 및 이용확대 계획을 세움.
- 중국의 에너지 및 환경 지속가능성은 세계은행이 중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임. CBM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세계은행은 중국이 포괄적인 제도적 및 정책적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ViewsWire, 2009.5.22)

□ 유럽투자은행, 베트남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 합의

- 유럽투자은행(EIB)은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1억 유로의 자금



을 지원하기로 베트남 정부와 합의.

- 베트남 재무부는 차관 중 70%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효율부문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며, 나머지 30%는 유럽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함.
- 동 정부는 1억 유로를 4개의 국영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

(Dow Jones Newswires, 2009.5.26)

□ 국제배출권거래협회, 미국 CO₂ 배출권 톤당 최저 \$10로 예상

-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5월 21일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기후변화법안에 의거하여 거래제가 적용되는 경우 CO₂ 배출권의 최저가격이 톤당 \$10로 설정될 것이라고 예상함.
- 연방 하원의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경매에서 배출권의 15%를 판매할 예정. 프로그램 시행 첫 해인 '12년의 배출권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은 \$10가 될 것으로 전망.
-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이로 인해 톤당 CO₂ 배출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톤당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 상기 법안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까지 '05년 대비 1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한편 환경보호청(EPA)은 동 법안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에서 '15년까지 배출권 가격을 톤당 \$13~\$17로 전망한 바 있음.

(Bloomberg, 2009.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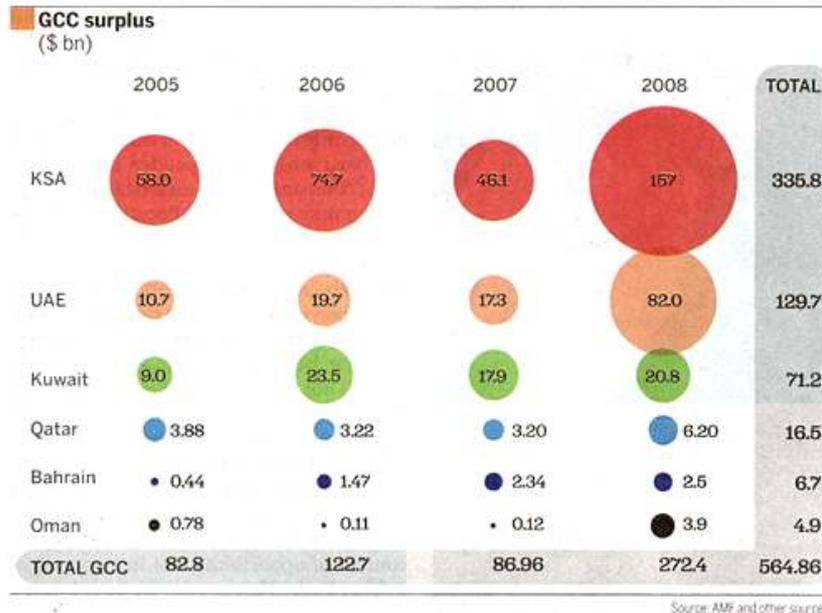
□ GCC, '05~'08년간 재정흑자 \$5,640억 기록

- 아부다비 소재 AMF(Arab Monetary Fund)에 따르면, 중동 산유국들은 '05~'08년간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와 원유가격 상승에 힘입어 누적 재정흑자 규모가 \$5,649억에 달했는데, 이는 이전 4년간 \$400억 대비 14배 이상 증가된 것임.
- 사우디의 재정흑자액은 \$3,358억으로, '05~'08년 중 GCC 국가들의 총 재



정확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UAE는 GCC 두 번째로 \$1,297억의 재정흑자를 기록했으며, 쿠웨이트 \$712억, 카타르 \$165억, 바레인 \$67억, 오만 \$49억임.

GCC 재정 흑자



- GCC의 총 재정흑자의 거의 절반은 유가가 기록적으로 치솟은 '08년에 달성된 것임. '05~'08년 중 평균 유가는 약 \$68/bbl로, '01~'04년 \$26/bbl 대비 약 60% 증가하였음.
- OAPEC에 따르면, 고유가 덕분에 GCC는 '05~'08년 중 \$1.45조 규모의 순 수익을 내게 되었고, 이는 그 이전 4년 동안 석유 수입의 2배 이상임.
- 전문가들은 GCC 국가들이 평균 유가(평균 \$50/bbl 이상)와 실제 지출 규모를 볼 때, '09년 예산에서도 여전히 재정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mirates Business 24/7, 2009.5.24)

□ UAE, '15~'17년까지 원자력발전 개시 목표설정

- UAE는 현재 3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IAEA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1호기의 발전 개시 목표연도를 '15~'17년으로 설정했음.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UAE와의 민수용 원자력발전소 계약을 승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UAE는 매년 9%씩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발전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UAE는 1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11~'12년에 착수할 예정임.
- 유가가 배럴당 \$70를 유지할 경우 GCC 국가에서의 원자력발전 도입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됨.
 - 발전용량이 1GW 규모의 발전소 건설에는 \$30억~\$50억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 UAE의 아부다비 정부는 발전소 부지 선정을 고려중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입찰서 준비, 기구 신설, 계약 체결을 담당할 컨설턴트 선정절차를 진행 중임.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상기 계획을 승인하기는 했으나, 90일 이내에 하원에서 동의를 얻어야 함. 미국과 UAE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은 이미 부시 정부에서 체결된 것이었음.

(ArabianBusiness.com, 2009.5.21)

□ 이라크, 외국석유회사에 35%로 법인세 인상 추진

- 이라크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외국 석유회사에 법인세를 현행 15%에서 최소 35%로 인상하는 법안을 확정함.
 - 석유부가 제안한 상기 법안은 '82년 소득세법에 35% 이상의 세금부과 조항을 추가하라는 국가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임. 이 법안은 추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재 이라크에서 운영 중인 외국기업들은 일률적으로 15%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 이라크는 유가급락으로 인해 '09년 4월에 수십억 달러규모의 지출계획을 철회하고 '09년 예산규모를 \$589억으로 조정할 바 있음.

(ArabianBusiness.com, 2009.5.21)



□ 카타르, 세계 LNG 수요의 30% 공급 목표

- 카타르 정부는 '12년 LNG 7,700만 톤 생산 및 세계 LNG 수요의 30%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스 하류부문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QP(Qatar Petroleum)에 따르면, 카타르의 '08년 LNG 생산량은 3,300만 톤에 달했으며 '09년에 약 6,000만 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카타르는 자국과 ExxonMobil과 같은 외국 합작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12년 목표치의 50% 이상을 향후 1년 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카타르는 '90년대 중반 역사적으로 최대 규모의 가스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거대 해상 북부 가스전(North Field) 개발에 착수했음. 동 가스전은 단일 비수반 가스 매장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09년 말 기준 매장량은 900조ft³로 추정됨.

(Emirates Business 24/7, 2009.5.26)

□ 사우디, 3년 내 유가 \$150로 급등 경고

-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기간에 걸쳐 생산증대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유가가 3년 내 \$150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 사우디 석유부 나이미(Ali Naimi) 장관은 다른 국가들이 2~3년 내에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08년에 경험한 유가 급등과 유사하거나 더욱 악화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나이미 장관은 저유가, 수요 저조, 고비용, 경색된 신용시장, 대체연료에 초점을 둔 에너지정책 등으로 인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음.

(Financial Times, 2009.5.25)



□ 리비아, '13년까지 원유 230만b/d 생산 계획

- 리비아 국영 석유회사(NOC)는 '13년까지 원유생산을 '08년 말 OPEC의 감산결정이 이행되기 전 평균 생산 수준(현재 150만b/d 생산)보다 50만 b/d가 증가된 230만b/d로 확대한다는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음.
- 리비아의 새로운 목표치는 '08년에 설정한 목표치('12년까지 300만b/d 생산)보다 대폭 하향조정된 것임.
- NOC는 '08년 하반기 유가 하락으로 인해 300만b/d 목표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9.5.25)

EUROPE & AFRICA

□ 프랑스, 에너지절약증서제도 절약목표 달성

- 프랑스는 '0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에너지절약증서제도(ESC)를 통해 '09년 5월 1일까지 에너지절약량이 총 60TWh에 달하여, 1차 시행기간('06년~'09년) 중 설정한 목표량인 54TWh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대부분 단열·보온 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와 같은 주택의 개·보수 공사를 통해 실현된 것으로, 프랑스 전체 가구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15%에 해당함.
- 에너지절약증서제도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에너지생산·유통 관련기관에 대해 절약증서의 획득을 의무화하고 자체적인 절약제도 구축을 유도하는 제도임.
- 동 기관들은 에너지절약을 통해 증서를 획득하거나 다른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의 증서 구입을 통해 목표달성이 가능하며, 미달 시에는 kWh당 2센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목표량을 초과한 증서에 대해서는 시장거래가 가능함.
- 이와는 별도로 건물 소유주나 기업 및 지역단체 등 비의무자들도 증서 획득을 통해 시장 참여가 가능함.



- 2차 시행기간('09년~'12년)에는 에너지절약 목표량이 늘어나고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의무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임.
- 1차 시행기간 중 연간 18TWh에 해당되던 에너지절약 목표량이 연간 100TWh까지 확대될 예정임.

(MEEDAT, 2009.5.27)

□ 스위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사업 투자 확대

- 스위스 제네바산업서비스공단(SIG)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09년부터 6년간 3.5억 스위스 프랑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신재생에너지부문에 3억 스위스 프랑을 투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규모를 현재 5.6GWh에서 '15년까지 150GWh로 30배 가량 증대시킬 계획이며, '30년까지의 목표 발전량을 255GWh에서 350GWh~400GWh로 상향조정함.
- 에너지절약부문에 0.5억 스위스 프랑을 투자, '13년까지 연간 150GWh의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설정함.
- 제네바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약 3,000GWh에 달하며, 연평균 2%씩 증가하고 있음.
- 제네바는 전력소비량의 25%만을 자체 공급하고, 75%는 스위스 기타지역 및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부문의 투자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Enerzine, 2009.5.25)

□ EU 집행위, 호주와 CCS 기술 협력 강화

- EU 집행위는 호주와의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에너지공급안보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5월 21일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CCS연구소에 참여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 EU는 탄소포집·저장(CCS)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호주와 동 부문 연구협력 및 기술교류를 증진시킬 예정임.



- 호주 정부는 CCS 기술의 상업적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08년 9월 자국 주도의 Global CCS Initiative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동 국은 CCS 기술개발 촉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국제CCS연구소를 설립 하여 '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소 20개 이상의 상업적 규모의 실증 프로젝트 시행을 지원할 계획임.
 -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한 16개 국가 및 석탄, 전력, 금융, 석유, 가스부 문 40개의 주요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음.
- 한편 EU 집행위는 최근 호주의 '20년까지 '00년 대비 5%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5%까지 상향조정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ENDS Europe, 2009.5.20), (Europa, 2009.5.20)

□ 이탈리아-미국, CCS 기술 협력협정 체결

-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회담에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개발 관련 협력협정을 체결함.
 - 미국 에너지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탄소를 포집·저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통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CO₂ 감축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향후 CCS 기술 상업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은 다양한 CCS 프로젝트 및 관련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이탈리아에서는 각종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은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가 프로젝트 운영을 담당할 예정으로 각국에서 시행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공유할 계획임.
 - 상기 협정은 CO₂ 감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CCS 기술의 상업화를 확대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24억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Department of Energy, 2009.5.27)



□ Alstom, 네덜란드 화력발전소에 고효율 터빈 공급계약 체결

- 프랑스 Alstom은 네덜란드 E.ON Benelux가 로테르담의 Maasvlakte 발전 단지에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에 1,110MW급 고효율 증기터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발전소는 해수를 이용하여 즉각적인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Alstom의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발전효율이 46%로 유럽 평균 효율 36%보다 높아지며, CO₂ 배출량 또한 획기적으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동 발전소는 '13년부터 상업 가동을 개시할 예정으로 바이오매스 혼합연소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 또한 북해와 로테르담 항구 근처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해수의 냉각수 활용이 가능하며, 수로를 이용하여 석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연료 공급이 가능함.

(Alstom, 2009.5.27)

□ 덴마크, '08년 풍력발전설비 수출 20% 증가

- 덴마크 풍력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의 '08년 풍력발전설비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20% 증가함.
 - 동 부분의 수출액은 '07년 47억 유로에서 '08년 총 57억 유로로 약 10억 유로 증가, 전체 에너지관련 설비 수출액의 70%를 차지하였으며 덴마크 전체 수출액의 7.2%를 차지함.
- 덴마크는 내부적으로 풍력발전부문의 세계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 측정 및 실연을 위한 추가적인 시범단지 확보가 요구됨.
 - 현재 덴마크에는 단 1개만의 시범단지가 가동 중이며, '22년까지 약 15~20개의 추가적인 시범단지 건설이 필요함.
- 덴마크는 풍력발전부문의 세계 선두국가로 현재 전체 전력소비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년까지 50%로 증대시킬 계획임.

(Romandie, 2009.5.25)



□ G8 에너지장관, 유가안정 촉구

- G8 에너지장관들은 \$75/bbl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망에 따라 산유국들에게 유가안정을 촉구함. G8 에너지장관들은 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인 \$60/bbl 이상을 기록하는 등의 유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로마에서 회담을 가짐.
 - 미국 에너지부 추 장관은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탈리아 에너지부 스카졸라 장관은 저유가가 경제위기 시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투자를 위축시키고 향후 유가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성장과 투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유가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탈리아 석유기업 Eni는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유가범위는 \$60~\$70/bbl로 보고 있는데, 과거 유가변동 사이클을 보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75/bbl 이상으로 상승하면 안되며, 유가의 불안정성 및 예측불가능성은 미래 에너지계획 수립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
- OPEC 회원국들은 감산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우디 석유부 나이 미 장관은 투자촉진에 필요한 적정 유가수준이 \$75/bbl라고 평가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원유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 알제리 에너지부 켈릴 장관은 경제가 회복되면 유가가 '10년 말 \$70/bbl 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근 유가상승이 투기 및 달러 약세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

(Reuters, 2009.5.24)

□ IEA, '09년 석유·가스 상류부문 투자 21% 감소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위기로 인해 '09년 석유·가스 개발 및 생산분야의 투자가 21% 줄어든 약 \$1,0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
 - IEA에 따르면 '09년 세계 석유·가스 상류부문 투자예산이 전년대비 약 21%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08년 10월과 '09년 4월 사이 \$1,700억 규



모의 대규모 석유·가스 상류부문 프로젝트 20개 이상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됨.

- 상기 프로젝트는 원유 200만b/d 및 가스 10억ft³/d의 생산목표를 포함하고 있었음. 한편 35개의 프로젝트가 추가로 18개월 이상 연기되었음.
- IEA는 상류부문 투자비용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량 부족상황이 초래되어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경우 다시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비OPEC 국가의 투자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유전에 대한 투자비용 감축으로 생산량 감소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음.

(Reuters, 2009.5.25)

□ 세계 LNG 장기 계약시장, 구매자시장으로 전환

- 우드메켄지 분석에 의하면,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 수요 감소, 북미의 비전통적 자원에서 가스가용성 증가, 대규모 신규 LNG 공급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세계 LNG 장기 계약시장이 판매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거의 전환되었음.
- 우드메켄지는 아시아 지역이 '11년까지 과잉공급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상당 수의 신규 프로젝트들이 생산을 개시할 '15년에 다시 과잉공급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우드메켄지는 인도와 중국의 LNG 수요 규모가 기대 이상으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에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음.

(Platts, 2009.5.26)



1. 에너지효율 향상효과에 대한 반등효과 고려 배제

□ 개요

- 에너지효율 개선수단은 기후변화대응책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반등효과(rebound effects)는 에너지효율 향상이 에너지사용 증가로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에너지의 효율향상으로 에너지가 절약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고효율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효율 개선효과를 상쇄하게 되는 직접적 반등효과와 효율향상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을 다른 에너지소비 사용으로 상쇄되는 간접적 반등효과가 있으며, 상기 두 반등효과는 경제 전반의 반등효과를 나타냄.
-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소비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절감된 에너지소비량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사용 증가분으로 상쇄되는 반등효과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음.

□ 세부 내용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수요를 줄이거나 최소한 수요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가능성은 상당히 크며,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책정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경우에서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비용측면에서 고효율적인 에너지효율 측정, 결과는 기업, 환경단체, 정당, 일반 대중 등으로부터 비교적 무비판적인 지지를 받음.
- 그러나 선진국의 에너지효율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향상된 반면, 에너지소비는 탄소배출과 함께 꾸준히 증가됨. 예를 들어 지난 30년간 영국 건물의 평균 열손실은 30% 감소하고 난방시스템의 효율은 30% 향상되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방온도가 상승하고 에너지서비스 사용이 증가함.
 -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규



제와 기준, 정보프로그램, 보조제도 마련 등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너지효율 향상이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수요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음.

- 에너지효율 향상은 이른바 반등효과(rebound effects)로 저해가 될 수 있고 에너지절약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일부 반론자들은 심지어 에너지효율 향상이 장기적으로 에너지소비 확대를 초래하는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함.

○ 직접적 반등효과

-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에너지서비스 비용이 감소되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에너지소비 감소 예측분을 상쇄.
- 고연비의 자동차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들은 더 멀리, 더 자주 운전을 하게 될 것임. 또한 가정의 단열기준이 높아지면 난방비가 감소되어 소비자들은 장기간 고온난방을 할 것임.
- 그러나 현재까지의 중단기적 관점에서 관련 효과의 일부만을 평가하였음. 대부분의 평가는 사람들이 고연비 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운전여부를 평가하였지, 연료효율 개선으로 중대형 자동차 구입을 촉진했는지 여부를 측정하지는 않았음.

○ 간접적 반등효과

- 소비자가 고연비의 자동차로 먼 길을 운전하지 않는 것처럼 특정 에너지서비스의 경우 비록 직접적 반등효과가 없었더라도, 자동차연료 소비절약으로 발생한 비용을 다른 상품구입이나 해외여행과 같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에너지효율적인 제강공정은 강철 제품가격을 낮출 경우 자동차와 같이 강철을 사용하는 제품의 비용도 낮아짐. 이것이 자동차가격의 인하로 이어지면 자동차 수요증가와 제조 시 에너지소비 증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간접적 반등효과로 역시 정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경제 전반의 반등효과
 - 경제 전반의 반등효과는 직접적 및 간접적 반등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보통 국가경제에 관한 반등효과로 정의되지만, 에너지효율 개선이 무역 패턴 및 국제 에너지가격을 변화시켜 다른 국가의 에너지소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분석사례 조사결과는 경제 전반의 반등효과가 3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에너지소비 증가사례로 추정됨. 한 예로 스코틀랜드 경제에 대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5% 향상 사례는 스코틀랜드 에너지소비의 전체적인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은 잠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등효과의 산출은 에너지절약 효과분석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영국의 주택단열개선 정책은 내부 온도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기타 에너지효율 평가에 대한 직접적 반등효과가 간접적 효과와 마찬가지로 무시됨.

(Energy Economist, 2009.5)

2. 석유 메이저, 아시아 지역의 심해유전 탐사개발 동향

□ 개요

- 석유 메이저(International Oil Company, IOC)는 석유·가스 개발사업 계획 중에서 외국기업에 자원탐사 개발에 대한 참여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는 아시아 지역을 주목하게 됨.
 - 이는 중동 산유국 및 구소련, 남미, 일부 아프리카에서는 자원민족주의로 외국기업에 자원탐사 개발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나, 아시아 지역의 주요 산유국에서는 정기적인 공개입찰에 의거해 광구개발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석유 메이저는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09년부터 '11년까지 심해지역의 시추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 내용

- 석유 메이저는 석유·가스 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외국기업에 자원탐사 개발사업의 참여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는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주목하고 있음.
 - 우드메켄지에 따르면 세계 석유·가스 산유국 중 42% 정도가 외국기업의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참여에 대한 제한이 있음.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이 '70년대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 해외자본의 석유개발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최근에는 구소련, 남미, 일부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자원개발 참여에 새로운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아시아 지역 중에서 중국 및 인도는 국영 석유기업이 석유·가스 개발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음. 그러나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주요 산유국에서는 정기적인 공개입찰에 따라서 광구개발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기업의 참여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음.
- 특히 석유 메이저가 우선 동남아시아 지역 탐사개발에서 주목하는 것은 심해지역의 탐사개발이며, 석유 메이저는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중심으로 '09년부터 '11년까지 탐사 시추정의 시추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사라와크주 연안 심해 2C 광구와 사바주 연안 심해 지역에서 SB-N, Q 광구의 탐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 독립계 석유·가스 기업인 뉴필드는 '09년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주 연안 심해 2C 광구에서 실시한 시추정 Paus-1에서 가스를 발견하였으며, 동 가스전에 약 12조ft³ 정도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함.



동남아시아 심해 탐사개발지역

국 가	지 역	광 구	운영 회사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주	2C 광구	뉴필드
	사바주 연안 심해	SB-N, Q 광구	BHP 빌리턴
인도네시아	마커서 해협 심해	Surmana	엑슨모빌
		Passangkayu	마라톤(Marathon)
		Kuma	코노코필립스
		StatoilHydro 등	카라마(Karama) 등
필리핀	술루해 심해	SC-56	엑슨모빌
	(Sandakin 퇴적분지)	SC-41	호주 탭오일(Tap Oil)
	팔라완섬 퇴적분지	SC-60	셀

- 호주 BHP 빌리턴은 '07년 3월 머피오일로부터 말레이시아 사바주 연안 심해 SB-N, Q 광구의 지분 60%를 획득하였음. 동 사는 '09년 3월 SB-Q 광구에서 3D 지진과 탐사작업을 종료하였으며, '09년 하반기에 시추작업을 개시하여 4개 탐사 시추정을 시추할 계획임. 사바주 연안 심해지역에서 Kikeh, Gumusut 등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지역으로 탐사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현재 사바주 연안의 Keabangan Cluster, Gumusut, Kakap 유전은 수반가스를 MLNG에 공급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이며, '11년~'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의 '06~'08년 탐사 광구입찰에서는 보르네오섬과 술라웨시섬에 위치한 마커서 해협이 가장 주목받는 지역의 하나이며, 일부 석유 메이저가 동 지역 심해 광구의 지분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메이저는 지금까지 지진과 탐사데이터 획득 등의 탐사작업을 실시하여 '09년 중에 탐사정의 시추를 개시할 예정임.
- 엑슨모빌은 '09년 2월 말 인도네시아 Surumana 광구에서 1호 시추정인 Rangkong-1 시추를 개시하여 금년 5월 초에도 계속 시추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Rangkong-1을 시작으로 총 3개정을 시추할 계획임. 또한 동 사는 '09년 5월 필리핀 술루해에 위치하는 심해 광구 SC-56에서 시추를 개시하였음.



- 마라톤, 코노코필립스, 스탯오일하이드로, 탈리스맨, 애너다코, ENI 6개사는 트랜스오션사와의 계약에 따라 향후 2년간 심해용 시추선 GSF Explorer를 이용하여 시추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 시추선은 마라톤의 마커서 해협의 Pasangkayu 광구 등에서 시추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09년 인도네시아 시추계획

광 구	운영 회사	지분취득 시기	시추 계획
Surmana	엑슨모빌	'06년 6월	'09년 2월~(Rangkong-1)
Passangkayu	마라톤(Marathon)	'06년 6월	'09년 후반 시추계획
Kuma	코노코필립스	'07년 1월	'10년~'11년 시추계획
Karama	스탯오일하이드로 페르타미나	'07년 3월	'10년~'11년 시추계획
MANDAR	엑슨모빌	'07년 3월	
SAGERI	탈리스맨(Talisman)	'07년 3월	'08년 11월~'09년 2월

- 필리핀에서는 SC-56 광구를 보유한 엑슨모빌의 시추결과에 따라, 호주 독립계 기업인 탭오일(Tap Oil)이 '10년에 SC-41 광구에서 시추를 개시할 예정이다. 셀은 팔라완섬 북동부에 위치한 SC-60 광구에서 '09년 4/4분기에 시추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석유 메이저는 '09년에도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연안 심해, 인도네시아 마커서 해협, 필리핀 팔라완섬 해안 등에서 심해광구의 시추를 추진하고 있음. 동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추결과는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 탐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JOGMEC, 2009.5.22)



국제유가 상승요인과 향후 지속 가능성

□ 개요

- 최근 Nymex 선물유가는 지난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한 달간 배럴당 \$1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 5월 20일 배럴당 \$60선을 돌파함.
-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최근의 유가상승 상황에 대해 펀더멘탈 요인에 의한 상승세로 분석하기 보다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및 금융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함.

□ 세부 내용

- 국제유가 급등세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실질적인 석유수요 증가가 아닌 국가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와 달러가치의 고평가 등으로 분석함.

- Nymex 선물유가는 4월 14일 배럴당 \$49.25에서 5월 12일 일중 최고가 격인 배럴당 \$60.08를 기록하며 60달러를 돌파, 고유가 상황의 재도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Nymex & Brent 선물유가

FORWARD & FUTURES			
Nymex Crude Futures	W1 May	Apr.	Mar.
US WTI	55.96	49.95	48.06
2nd month	+1.31	+2.06	+1.44
3rd month	+2.45	+3.87	+2.69
4th month	+3.46	+5.20	+3.72
Brent 21-Day			
UK Dated Brent	54.37	50.39	46.48
UK Forward Brent	55.36	51.43	47.71
2nd month	+1.07	+1.12	+1.24
3rd month	+2.13	+2.25	+2.38
4th month	+3.06	+3.28	+3.34
ICE Futures			
UK B-wave	55.20	51.25	47.31
UK Brent Futures	55.68	51.39	47.42
2nd month	+1.04	+1.05	+1.29
3rd month	+2.12	+2.20	+2.52
4th month	+3.06	+3.23	+3.48
Forward Dubai			
Dubai Fateh	54.24	50.10	45.75
2nd month	-0.10	-0.03	-0.05
3rd month	+0.23	+0.37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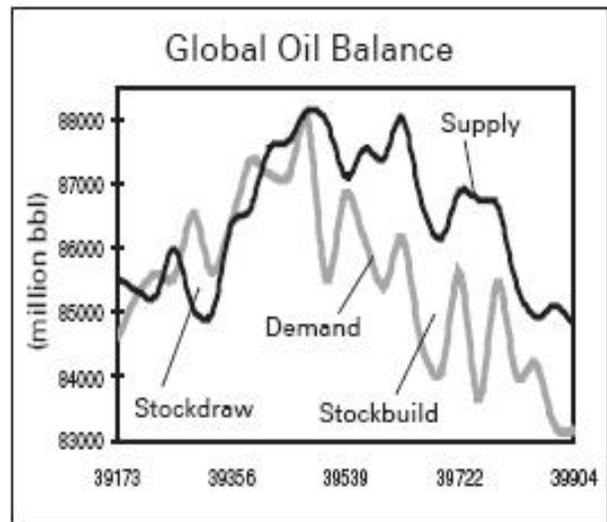
- 하지만 분석가들은 유가 상승요인을 경제적 심리, 즉 세계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상기 요인들은 유가상승을 지지할 원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향후 유가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경기회복 조짐을 나타내는 지표와 침체의 지속을 나타내는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유가 상승을 지지할 명백한 요인은 없음.



- 더욱이 최근 유가 상승세 지속요인은 경기회복 기대뿐만 아니라 유가 하락세를 막기 위한 반대 매수세의 증대로도 분석됨.
 - 단기적인 기술적 지표의 하락세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 증가로 유가하락을 유발할 수 있지만, 거래자들은 이외의 유가상승 지지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석유수요 감소 전망으로 인한 석유공급 과잉 예측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아무런 패닉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현 석유시장 상황을 반영함.
 - 실제로 지난 4주 동안 세계 주요 현물거래시장에는 공급과 수요사이의 격차(공급 과잉)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으나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함.
-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와 달러가치가 여전히 고평가된 상황이라는 인식 역시 유가상승을 지지하고 있음.

세계 석유수급 밸런스



- 지난 5월 13일 IEA의 원유재고 발표는 유가가 펀더멘털 보다 심리적 요인과 달러가치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현 상황을 잘 나타냄.
- 이날 IEA는 원유 및 휘발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급감했다고 발표, 재고의 급감은 유가를 급등시키기에 충분한 요인이지만, 실제 미국 및 유로지역의 부정적 경제지표 발표와 영국 은행의 경제성장 전망의 하향 조정에 따른 주식 폭락 및 달러가치 상승으로 유가는 오히려 소폭 하락함.
- 현재의 원유재고 감소 상황은 석유수요의 증대에 기인한 것이 아닌 공급 감소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석유수입 감소에 기인함.



세계 석유수급 및 재고변동

(단위: 백만 b/d)

	3Q/08	4Q/08	1Q/09
OECD 수요	46.6	47.3	46.5
비OECD 수요	38.8	37.7	37.4
세계 수요	85.4	85.0	83.8
비OPEC 생산	50.0	50.7	51.0
OPEC 원유생산	31.5	30.5	28.4
OPEC-NGL	4.7	4.8	4.7
세계 공급	86.2	86.0	84.0
재고 변동	0.8	1.0	0.2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2009년 5월호

- 석유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부문은 저장 및 해상운송부문일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석유현물시장은 콘탱고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선물곡선은 평평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장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석유 저장 및 운송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는 여전히 세계 경기가 침체 속에서 빠져나온 상황이 아닌 가운데, 유가가 배럴당 \$60를 초과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임.
 - 향후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및 세계 경기침체의 조기 회복이 실현 가능할지 미지수이며, 유가가 석유수급에 의해 변동되는 일반적인 상황이 되지 못하는 한 유가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움.

(Oil Market Intelligence, "Running Against The Wind", 2009.5)